

200자 안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라

앨런 와츠 지음 / 이성명 옮김

인도철학과 중국철학, 특히 선불교의 뛰어난 해석자인 저자가 불안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메시지.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하는 불안은, 삶의 본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정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저자는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를 때 최대의 행복과 정신적인 통찰력 그리고 절대적인 확실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려원미디어 / A5신 / 208면 / 3500원

손바닥만한 이야기

도종환 외 지음

36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갖가지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아이들에 대한 진솔한 사랑을 담은 39편의 쫄쫄집.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는 하나」 「지금쯤 서로를 확인하는 때」 「늘 곁에 있는 아이들」 「함께 부르는 노래」 등 짧지만 깊이 있는 글을 통해 억눌린 교육현실을 극복해가는 가슴뭉클한 사연들을 들려준다.

청년사 / A5신 / 248면 / 3800원

논문작성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엮음

올바른 논문의 작성 기술을 알려주는 지침서. 논문의 형식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논문은 일정한 형식안에 법칙에 따라 담길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서적, 논문 등을 인용하는 세계 공통의 약속들을 소개하면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등 각 전공분야에 따라 적절한 실례를 실고 있다.

연세대출판부 / A5신 / 170면 / 2900원

아이를 승리자로 키워라

빅토르 B. 클라인 지음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가 부딪칠 수 있는 갖가지의 문제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상황들을 추려 그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책을 제시한 양육 지침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결혼문제상담 및 아동심리연구로 오랜 경험을 쌓은 이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가 수많은 검증과 임상실험을 거친 핵심적인 사항들을 싣고 있어 문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지 퍼볼 수 있게 했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350면 / 4200원

깨달음을 여는 창문

길연 글·그림

최근 국내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즈니쉬의 명상서를 주로 번역해왔던 저자가 가난한 피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서울도심의 봉원동(일명 봉타운)을 무대로 독특한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을 스케치한 우화집. 마치 태풍의 눈과도 같이 예외적인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노자의 무위자연에 가까운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체면과 위선과 관성에 이끌려 살아온 일상의 삶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깊이와 넓이 / A5신 / 124면 / 3200원

신용은 현금처럼 분배할 수 없다.

정주영 지음

현대그룹 명예회장인 저자의 고회 연설문집과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 가운데 아포리즘적 요소의 말만 가려뽑아 엮은 일종의 어록. 유년시절을 거쳐 기업의 경영인이 되기까지의 삶에 대한 인식변화와 독특한 사고방식 등이 한국사회,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함께 짧은 글 속에 드러나 있다.

문화행동 / A5신 / 182면 / 3200원

적과 함께 잠들다

낸시 프라이스 지음 / 김경숙 옮김

폭력적인 남편의 지배로부터 탈출하여 주체적 인간으로 서고자 하는 한 여성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과감한 도전을 그린 장편소설. 긴박감 넘치는 문체와 서스펜스와 로맨스가 절묘하게 결합된 스토리 전개 외에도,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영화로 제작, 국내에서도 상영중인 '적과의 동침'의 원작소설이다.

소학사 / A5신 / 390면 / 4800원

진정 그대가 원하는게 있다면

얼 나이팅게일 지음 / 임현택 옮김

미국의 유명한 방송 칼럼니스트인 저자의 에세이모음. 「당신의 분야에서 지도자가 된다」 「아이디어를 얻는 창조적 사고방식」 등의 저서에서도 현대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담아왔던 저자는 이 수필집에서도 역시 간결

하면서도 철학적 깊이가 있는 글을 보여준다.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계속해서 배워야 할 삶의 방식' 등 8개의 주제로 나눠 묶은 각각의 에세이의 일관된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다.

백담 / A5신 / 226면 / 3800원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김영웅 지음

출가와 환속을 거듭한 삶을 살아온 작가의 체험이 짙게 밴 장편소설. 재출가 후 다시 유랑생활을 하던 중 한때 수녀였던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소설은 바로 수녀였던 아내의 일기를 바탕으로 수녀원에서의 생활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기도와 수도로 이어지는 절제된 생활과 인간적 욕망이 교차하는 내면의 갈등을 묘사한 작품.

청림출판 / A5신 / 278면 / 3800원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가와노 마코토·오시마 미찌코 지음 / 권자인 옮김

연골육종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21세로 생을 마친 여대생과 그의 남자친구가 3년간 주고 받은 400여통의 편지를 모았다. 자신의 불행을 닦아주기보다는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미찌코의 순수한 마음과, 혹독한 투병생활 내내 편지를 통해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마코토의 진실한 사랑이 감동적이다. 일본에서 출간 1년만에 135만부가 팔렸고, 드라마화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세대 / A5신 / 280면 / 3800원

丁茶山詩文選

丁若鏞 지음 / 金智勇 역주

정다산의 실사구시 사상과 경제제민의 경론 등이 담긴 시 200편과 산문 74편을 번역 수록한 책. 굿주리는 백성들의 삶과 사회혼란을 바라보며 세속을 초월하는 평화의 경지를 바라는 심정이 담긴 시편들과, 문체·인재등용·화폐제도·윤리도덕·정치본질 등 책문과 疏·原·論·記·跋·傳·書 등의 산문들이 원문과 함께 자세히 풀이돼 있다.

교문사 / A5 / 806면 / 15000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한다

박재창 지음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이며 사단법인 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저자의 시사평론집. 지난 1년여간 신문 및 잡지에 게재했던 글 2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정치권 전반의 탈바꿈문제, 의회정치의 정상화, 지방화 시대 실현 등 우리 정치 현실의 한계와 과제

등을 의회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을 통해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저자의 애정과 끈질긴 집착을 읽어낼 수 있다.

삼인행 / A5신 / 288면 / 4000원

그대, 빈가슴에 남아

金亨石 지음

대만에서의 유학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한 작품. 주인공 김진영은 대만대학원에서 동양미술사를 공부하던 중 오향아라는 소녀를 만나게 된다. 이미 결혼을 한 진영은 맑은 영혼으로 다가온 향아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나누다 결국 향아의 죽음까지 지켜보게 된다. 사랑의 상처를 안겨준 한 여인에 대한 양심의 고백이 솔직하게 그려져 있다.

삼성출판사 / A5신 / 324면 / 4000원

사법시험, 무엇이 문제인가?

최종고 엮음

사법시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현행 사법시험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험제도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법학교육, 법조제도 등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한편, 전국법과대학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건의서와 일본에서의 사법시험제도 개선 논의, 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교육과학사 / B6변형 / 192면 / 3000원

섬강에서 하늘까지

조해인 지음

작년 9월, 경기도 여주군 섬강교 버스 추락 사고로 처자를 잃은 당시 덕수상고 영어교사故 장재인씨의 순애보적 삶을 다룬 실화소설. 주말부부 교사로 서울과 홍천을 오가던 주인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가꿔 나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아들이 죽자 생의 의욕을 잃고 장문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다는 이야기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모아 / A5신 / 306면 / 4000원

상처받기 쉽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이데올로기나 조직화된 종교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철학이나 신념, 욕망과 갈등이라는 이성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절대사랑·절대자유를 설교한 저자의 또하나의 명상집으로, 종래의 그의 저서들과는 달리 특유의 명상원칙과 자연묘사를 통한 명상의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생상담식의 대화체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청담사 / A5신 / 374면 / 4200원

어떻게요 지구가 아프네요

김소천 엮음

아동용 환경도서로 환경오염의 실태와 그 대처방안을 국내의 현장사진, 삽화와 함께 소개했다. 산성비·온실효과·대지의 사막화·오존층 파괴 등 세계적 환경문제의 농약사고·토양오염·수질오염 실태 등 국내문제로 나눠 설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환경보호를 위한 37가지의 실천사항을 제시,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바른사 / A5신 / 182면 / 3000원

푸른 시간의 소리

정상옥 지음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수필부문 당선으로 등단한 작가가 처음으로 펴내는 수필집.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느낀 단상들을 담백하고 소박하게 담아낸 50여편의 글들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나무이랑에서 엮는 시집' '행복한 꿈의 집을 그리며' '흐린 날의 항구' 등 4부로 나누어 엮었다.

이가출판사 / A5신 / 206면 / 3300원

여인성불

윤허용하 엮음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는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정신에 입각해 특히 성불에 있어 남녀차별의 시각을 수정해보자 하는 의도로 씌어진 책이다. 동국역경원을 창설, 팔만대장경 역경사업을 주도했던 저자가 "여자로서 불법을 닦아 도를 얻은" 역사적 사례 30여편을 모아 엮었다.

불광출판부 / A5신 / 214면 / 3600원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아름답다

유재용 지음

「누님의 초상」 「침묵의 땅」 등의 소설로 알려진 중견작가의 첫 산문집. 지난 10여년간 틈틈이 써왔던 생활속의 이야기 47편을 담았다. 맛에 대한 저자의 철학과 술에 얽힌 일화들로 묶은 1부 「맛으로 열리는 세상」을 비롯해, 젊음 사랑 생명에 대한 의경과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가 만난 사람들」(2부), 일상사의 자잘한 에피소드와 서민들의 애환을 푸근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개구리」(3부) 등 작가의 담담한 고백을 통해 산문이 지닌 독특한 문학적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모음사 / A5신 / 300면 / 4000원

초록빛 오늘 뒤에는 황금빛 내일이

김성민 지음

살레지오 여자수도회 수녀인 저자가 지난 3년 동안 라디오방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들

려준 명상의 단편을 모아 묶었다. "순결한 청소년은 미래를 향한 꿈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사랑하자" "자신에 대해서 알자"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등등 어찌보면 당연한 듯한 진리의 말들이 청소년들에게 또다른 울림으로 전해진다.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70면 / 1500원

클라라 슈만

카트린느 레프롱 지음 / 이용택 옮김

당대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슈만의 아내로서 더 알려져 있는 클라라와 격정적인 낭만주의 음악가 슈만의 사랑과 죽음, 절망과 해방의 이야기가 밀도있게 그려져 있는 전기소설. 동시대인들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커플로 인정받았던 그들의 결혼이 슈만의 때 이른 죽음으로 끝나버리자 유럽전역을 돌며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전파하는 데 열정을 쏟는다는 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삼진기획 / A5신 / 284면 / 4000원

우리들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예요

폴 진델 지음 / 김정옥 옮김

「감마선은 달무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저자가 10여년 동안의 교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청소년소설. "어른들은 10대들을 어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시각으로 보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어른은 없다"고 따끔하게 꼬집는 작가는 열등생 존과 로라가 정말 그들을 잘 이해하는 '돼지할아버지'를 만나 문제아의 틀을 깨고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일월서각 / A5신 / 176면 / 3500원

살며 사색하며

오마르 가이얌 지음 / 양기식 옮김

시인,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중세 페르시아의 대시인의 루베이(페르시아 문학의 전통적 운문) 235편을 모은 책. 엄격한 운율과 기술형식을 지니는 페르시아의 전통적 운문을 감상할 수 있다. 시속에 녹아 있는 당대의 사회상과 함께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융합하면서 신비주의에 경사되지 않고 현세의 삶을 중시여기는 시인의 사상을 접할 수 있다.

경운 / A5신 / 130면 / 3000원

당신의 정신을 건강합니다

이규동 지음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자신의 임상경

험을 토대로 소개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례와 그 대책. 전 8장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방지책, 공포증, 노이로제, 정신병, 사회와 가정을 위한 정신위생, 일과 휴식의 조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정신상태를 다양한 임상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진단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동아출판사 / A5신 / 280면 / 4200원

장미의 이름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김혜순 지음

「또 다른 별에서」 「우리들의 陰靄」 등의 시집을 낸 바 있는 시인의 에세이집. "인생이란 자신이 일평생 걸었던 '길의 뭉침'"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 실린 52편의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기의 추억, 인생과 예술에 관한 단상, 일상에서 포착한 우리 사회의 여러문제들을 마치 인생의 심층부를 여행하듯 들추어내고 있다. 저자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풍부한 언어적 감성이 돋보인다.

웅진문화 / A5신 / 272면 / 4000원

무크

또하나의 문화

또하나의문화 엮음

〔논설〕▲결혼, 사랑, 그리고 성(조혜정) ▲사랑의 미신(정대현)

〔집중연구〕▲결혼, 그 단함과 열림(김찬호) ▲1920년대 신여성(방금희 / 오경희 / 이신옥) ▲'님'과 '성'(박미라) ▲부다페스트의 성과 사랑(조미정) ▲연변 조선족의 성과 사랑(박여해)

〔적응과 성장〕▲꿈에 본 남자가 바로 네 아버지였어(한우아) ▲동서사랑으로 버틴 중부의 삶(안동지역 한 중가의 며느리) ▲엄마의 꿈, 딸들의 노래(한정아) ▲사랑하며, 살며, 일하며(문정주) 외

〔테마포트〕그 여자의 환상(정지연) (새동화)▲신데렐라(송연화 / 안윤경 / 유근실 / 이진희) ▲종이웃 공주(로버트 N. 먼취 지음 / 한영희 옮김) ▲새로 읽는 공주 이야기(이영 폐처)

〔공동창작〕경고! 사랑을 죽이는 바이러스X가 돌고 있다!

또하나의문화 / A5신 / 342면 / 5500원

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 (91년 여름)

〔특집〕90년대 한국문학의 쟁점 ② 현실주의 ▲80년대 리얼리즘 논의와 맑스주의적 예술실

천이론의 모색(이성훈) ▲문학지형의 변화와 생활세계의 문제(구모룡) ▲80년대 리얼리즘 시의 반성과 이후의 전망(진창영) ▲80년대 한국연극의 리얼리즘과 90년대의 전망(허은) [작가탐방]시인 정동주를 찾아서

(오늘의 작가)황지우, 나는 '새'에서 기는 '개'까지(남송우) [현안진단]비평 대중화를 위하여(박남훈) [논문·비평]▲시문학에 있어서 회화성 확보(이상금) ▲포스트모던한 개인주의의 탈서사 전략(황국명)

[서평]장정일 / 송희복 / 박경수 / 이강은 / 고현철 / 김경복 / 이상원

[계간평]즐거운 비관주의-유화의 연작시 [「오늘의 문예비평」이 새로 쓰는 문학 용어 사전]낯설음 효과 / 몽파쥬 / 자기 (91년 2/4분기 평론 목록) 地平 / A5신 / 222면 / 3000원

농민과 사회 (창간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엮음

〔좌담〕해체위기 맞은 우리농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김성훈 / 조옥라 / 박진도 / 서혜란 / 위의환)

〔특집〕농수산물 수입 전면개방과 우리농업의 살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해부한다(황수철) ▲농업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조영탁) ▲농업위기와 농업발전의 방향(장상환)

〔동향과 쟁점〕▲우리 농업 비관으로 물고가는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이일영) ▲누구를 위한 농지전용인가(김홍상) ▲쌀시장 개방의 단계적 포석(강승호)

〔탐방〕최초의 민간협업농장 백운산농장을 찾아서(이균영)

〔현장의 소리〕▲협동으로 삶의 터전 가꾸는 괴산군 불경면 농민들(이태로) 외

〔자료〕함부르크 농업선언 / 우루과이협상과 농업에 대한 세계농업단체회의 선언 한길사 / A5신 / 232면 / 3800원

